

서양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초 중국의 사회상 — 『차이니스 레포지터리 *The Chinese Repository*』의 「잡록 *Miscellanies*」과 「사건일지 *Journal of Occurrences*」를 중심으로

이보고*

【목 차】

1. 서론 : 서양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 중국 재현
2.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과 「사건일지」 속
중국 현실과 그에 대한 재현
 - 1) 재난 서사 : 홍수, 지진, 메뚜기 떼
 - 2) 반란 서사
3. 전근대 중국을 바라보는 서사 주체의 내부에 비친 근대성
 - 1) 「조공사절단」과 「구휼」로 보는 국가
 - 2) 소외된 개인들과 지역에 대한 기록 : 이주민, 아동, 여성
 - 3) 서양인이 보는 중국 지식인
4. 결론 : 대상에 대한 미세서사와 그 내면의 이데올로기

【초록】

본 논문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과 「사건일지」란의 소개 내용을 중심으로, 19세기 초 선교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중국 사회의 부조리, 자연 재해, 국가 기능, 지역 소식,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다. 이 두 항목에서 주로 그려진 서사는 당시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직접 문화접촉의 현장에서 마주했었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 주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삶의 현장성을

*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부교수 (bogopanda@hanmail.net)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파악된다. 본 논문은 중국의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 형성되는 현장성을 미세서사의 형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서사에 주목하면서, 그 안에 가로질러 있는 신교 선교사들의 근대적 열망을 추출해 보았다. 필자 또한 이들의 이 같은 서사가 단순히 물리적 혹은 계량적 묘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당대의 사회 모순과 다양한 층위에서 살고 있는 약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이 같은 외연에서의 미세서사와 그 내면을 채우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The Chinese Repository, Miscellanies, Journal of Occurrences*, 미세서사, 오리엔탈리즘, 현장성, 기록, 반란, 재해, 약자, 지식인

1. 서론 : 서양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 중국 재현

『차이니스 레포지터리 *The Chinese repository*』는 광둥에서 발행된 최초의 영문 잡지로서, 이 잡지의 기사들은 당시 동아시아로 건너와 활동하던 선교사들이나 외교관, 상인 등 특정 계층들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나 사회 변동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적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축적되어 가는 상대 지역에 대한 지식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내면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근대적 과학관이라는 강력한 신념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아시아의 대상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이라는 정체성 이전에 이들은 자신들이 유럽의 근대 문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구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선은 사실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글들보다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소소한 문제들을 다룬 다양한 소품문, 즉 잡문들 속에서 빈번히 발견되는데, 바로 이것들이 독자들에게 현지에 대한 풍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준다.

이들 선교사들은 근대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새롭게 의식하고 있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전제하면서도, 이들은 대상을 소소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성격의 글들을 다수 남긴다. 이런 성격의 글에는 사건이나 인물, 사고 등

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매우 뛰어났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중국의 언어관이나 종교관, 세계관 같은 거대 담론에서 놓칠 수 있는 선교나 현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갈등과 충돌, 사건, 사고들을 재현하고 있었고, 이는 현지에 대한 매우 생동감 있는 뉴스 전달 매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모리슨의 경우 자신이 쌓은 경험과 언어 능력 그리고 현지 이해에 기초해서 ‘잡록*Miscellanies*’, ‘사건일지*Journal of Occurrences*’, ‘문헌소식’, ‘종교소식’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글을 집필한다. 그 가운데 ‘잡록’과 ‘사건일지’는 모리슨이 중국에서 경험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엿볼 수 있게 기술하고 있다.¹⁾ 이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문명 충돌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살아가는 중국 백성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재현해 줌으로써 접촉지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진실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초기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Miscellanies*’과 ‘사건일지*Journal of Occurrences*’를 중심으로 필자들의 눈에 비친 당시 중국의 사회현상, 자연 재해, 국가 기능, 지역 소식, 인물상 등을 살펴보면, 거대서사가 아닌 미세서사²⁾ 속에 녹아 있는 당시 이들의 중국에 대한 시선과 이들 스스로가 추구했던 근대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그 관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묘사된 중국 재현들은 이들 선교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면서, 더 넓게는 유럽의 근대성이 처해 있는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선 속에서 다시 재조직된 오리엔탈리즘의 응결물이기도 했다. 비록 「잡록」과 「사건일지」가 일관된 서사로 묶어 낼 수 없는 파편화된 기록들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 시선의 연속성과 관점의 변화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이 글들이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현실 텍스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재현을 통해 앞에서 말한 자신들의 근대성을 반추하면서, 동시에 다시 동양이라는 대상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1) 민정기·심혜영, 『동서양의 경계에서 중국을 읽다』, 새물결 출판사, 2018.05, p.433.

2) 미세서사와 관련해서는 메리 루이스 프랫이 제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발견의 수사” 속에 탐험가가 성취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가져와 보겠다. 이들 발견의 수사에는 뚜렷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풍경의 심미화, 둘째는 의미의 밀도를 높이는 것, 셋째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서 성립되는 지배(mastery)의 관계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미세서사는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풍경에 대한 심미화,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근대적인 의미 맥락화, 그리고 보고 보여 지는 것 사이의 권력화 과정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잡기」와 「사건일지」에서 보이는 서사의 전략을 세밀한 현실 재현을 통해, 당대 중국 사회의 풍경을 심미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문화적 의미들의 밀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서사하는 이와 서사되는 이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 관계를 은연중에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서사에 대한 분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 서사에 대한 재현의 차원을 넘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메리 루이스 프랫, 『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2015, pp.454-456 참조.

텍스트의 중층적 의미를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단일한 연구 주제로 총괄되기는 어렵지만, 주로 『차이니스 레포지터리』를 19세기 유럽에서 진행된 ‘실용지식보급운동’ 및 18~19세기 ‘신앙부흥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이러한 맥락의 아시아적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지식의 확장 문제를 다루는 연구 방향이 주류³⁾를 이루고 있다. 심혜영의 경우,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에 의해 형성된 역사에 대한 진보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적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앙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자녀들이 바로 『차이니스 레포지터리』 활동을 주도했었던 신교 선교사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신교, 신념 체계로서는 계몽주의와 과학주의로 무장하고 그 대상이 아시아를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고 파악한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들의 아시아적 확장이 종교성뿐만 아니라 유럽의 근대성 확장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⁴⁾ 이외에 신정수의 경우, 신교 선교사들이 중국의 저명한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읽고 분석했는지에 대한 연속적인 논문들을 내놓아, 서구인들의 중국 문학 수용이라는 관점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⁵⁾ 민정기나 차태근의 경우, 유럽에서의 근대적 지식, 특히 아시아에 대한 지식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전 예수회 선교사들이 행했던 적응주의적 방법론과는 달리 이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근대적 아시아 상에 대한 지적 권위의 형성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⁶⁾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위상을 문명적 만남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아시아 관련 지식, 아시아에서는 근대적 가치와 종교 전파라는 문화접촉 상의 의미를 전제로 파악하기보다 해당 텍스트에서 기록, 서사되고 있는 현실에 더욱 주목하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파악하는 당시 중국 사회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⁷⁾ 물론 외부자의 시선도 단순히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3) 백광준, 「19세기 초 서양 근대 지식의 중국 전파 -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91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4) 심혜영, 「18-19세기 신앙부흥운동의 문맥 속에서 바라본 브리지먼의 중국선교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 『중어중문학』, 제7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03, p.109.

5) 신정수, 「19세기 전반기 유럽 선교사들의 『三國志演義』 소개 방식과 서술 태도 연구-모리슨과 구클라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5.08, 신정수, 「『紅樓夢』 초기 영문 자료 해제 및 번역 : 19세기 전반기 쉐튼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2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8.01. 등의 논문이 있다.

6)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현대문학』, 제32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03, 민정기, 「귀클라프: 세 번째 중국연안 항해의 기록」,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7.07.

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의 이면에는 문명의 우열 문제, 근대성의 확산 문제, 종교 전파의 문제 등 다층의 근대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최대한 당시 중국 민중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들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과 「사건일지」 속 중국 현실과 그에 대한 재현

1) 재난 서사 : 홍수, 지진, 폐뚜기 때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과 「사건일지」에 소개된 내용들은 일관된 주제로 묶어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체적인 소재나 관점의 통일성이 부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주로 이 두 항목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소식, 지방 반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곡물독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중국 관료들의 개인적 이력 및 덕목, 그리고 궁정의 법도, 중국 여인들의 인생 굴곡, 또 중국인 이민자들의 험난한 현실 등 다양한 정보원들을 통해 획득한 현실 중국이라는 대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서사 속에는 사실 해석의 여지보다 그 자체로서 이들의 시선⁸⁾과 그 속에 내재하는 중국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대상을 중국으로 삼기보다, 자신들이 선교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이나 중국 정부와의 견해 차이, 중국 관방에 대한 놀라움이나 국가적 자존심 문제 등 현지의 경험 속에서 서사 주체의 내부가 감당해 내야 하는 내적 문제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 가치를

7) “물론 상이한 문화의 접경지대 혹은 혼종지대 속에서 이주자들의 스트레스는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소설에서 부각되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혼종적 문화충돌과 갈등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고해림·양난, 「문화접촉의 경험이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작중인물의 심리학적 접근과 고찰」, 『중국학』, 제63집, 대한중국학회, 2018.06, p. 50.

8) 메리 루이스 프랫 Mary Louise Pratt은 이 같은 서양 부르주아지의 시선에 ‘반정복(anti-conquest)’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유럽의 해게모니를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결백을 지켜내고 싶었던 유럽의 부르주아 주체들이 활용한 재현 전략을 ‘반정복’이라 하는데, 본문에서 신교 선교사들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반정복’의 시선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절대적이면서도 그러나 동양에 대한 식민화의 의지와는 거리를 두면서 종교적 양심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적 시선에 해당된다. 메리 루이스 프랫, 앞의 책, pp.35-36 참조.

한 눈에 알아볼 수 없지만 그 배경을 음미해 낼 때만 의미가 배가 되는 서사들이다. 이는 기독교나 근대 과학적 관점이 주제 선행된 서사들보다 훨씬 더 현장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자연재해인 홍수와 지진, 메뚜기 떼, 반란, 곡물 독점에 대한 경고를 통한 국가 기능, 또 여성과 이주민들을 포함한 하층민들에 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생생한 당시 현지의 실태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9세기 초반 중국의 지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 재해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더 나아가서 대규모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이 거대하거나 혹은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차이니스 레포지터리』는 「잡록」과 「사건일지」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소개의 방식은 단순히 사건과 그 내용을 기록하는 짤막한 단신의 성격 기사도 있지만, 아무리 작은 사소한 사건이라도 필자, 즉 서구 근대인이자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점을 개입해서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제2권 5호, 즉 1833년 9월의 게재 내용을 보면 당시 큰 피해를 입혔던 홍수에 대한 기사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와 일탈에 대해 가하시는 두드러진 벌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부른다. …… “당신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리적 우주와 구별되며 그것보다 우월하신 분에 대한 관념이 없지만 그들도, 인간의 사악함이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며 광둥성 주민들이 올해 경험한 것과 같은 공공재해를 가져온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재난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화’와 ‘재’가 그것이다. 전자는 인간 자신이 만든 또는 혹은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악을 의미하고, 후자는 하늘, 즉 자연의 초능력이 가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우리는 존경스러운 노신사로부터 전해져 온, 그가 ‘진정 하늘이 보낸 거대한 재난a truly great heaven-sent calamity’이라고 명명한, 지난 100년 동안 유례가 없던 최근의 끔찍한 폭풍과 파괴적 홍수에 대해 묘사한 편지를 보았다. 다른 필자는 돌풍과 폭우의 급류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 내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깔려 죽거나 불구가 되는 상황에서 총독과 무원이 달려 나와 떡을 나누어주고 피신을 위해 생존자들을 성벽 쪽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울면서 눈물을 쏟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독은 그를 수행한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전했다. “정부의 통솔권을 갖고 있으며 백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우리가 잘못된 통치로 자연의 조화를 파괴해 이런 심판을 불러온 것이다. 나는 백성의 고통을 차마 볼 수가 없다. 백성들이 집도 가정도 없이 밖으로 흩어지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재난이 나에게 가해지기를 바란다.”

이 보고는 총독과 순무가 공표한, 부자들에게 수재민 구제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공식성명서에서 확인되었다. 성명서에서 그들은 이 ‘기이한 재난’을 백성을 수리 사업으로 인도하지 못한 자신과 동료 관료들 탓으로 돌리며 “우리가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단지 위선적인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목적은 이교도들의 생각을 보여주려는 것이다.⁹⁾

이 글에서 모리슨은 중국인들의 재난 관념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기독교적 관념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한다.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또 중국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현지 지식인으로서, 이는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문화상의 개념 차이를 먼저 전제함으로써 자연 현상에 대한 문화적 수용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벌’로 간주하지만, 중국에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재난과 하늘이 내리는, 초자연적인 재난을 구분하여 ‘화(禍)’와 ‘재(災)’라는 개념으로 달리 이해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과학 기술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교 선교사로서 홍수의 의미를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벌로, 다른 한 편으로는 인재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홍수는 그가 보기에 지방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통치가 불러온 결과이고, 따라서 자연재난을 당해서 선포하는 총독의 겉사는 모리슨이 보기에 하나의 거대한 위선에 불과하다. 이들의 통치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또 지역 통치에 있어서도 위선에 기초해 진행되는 지배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중국 지방 관리의 재난에 대한 언급과 비교해, 중국인이면 서도 이미 신교로 개종한 중국인 교인의 홍수에 대한 마음 아픈 심경 글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중국인 교인의 글에서는 “우리 고향의 왼편, 오른편 마을에서는 약 1천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1백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남은 사람들은 인근 동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늘이 내린 재앙이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틀림없이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모반과 사악함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차오릅니다. 저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느낍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로부터 구하시고, 우리 구세주의 종교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¹⁰⁾와 같은 기도가 실려 있는데, 앞에서의 총독이 홍수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기독교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9)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p.428-430.

10)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49.

물론 이들은 한편으로 봉건적 통치의 위선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재난을 통해 지방과 중앙 정부의 대처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필진들은 관심을 놓지 않는다. “이 범람은 광저우 정부 당국의 큰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난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독려하고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면직물과 차를 판매하는 상인, 세대주(호주), 그 밖에 다양한 계층에 부과하는 세금 형태로 요구되었다. 동시에 협박으로 부자들에게 돈을 탈취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경고를 날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순무는 가난한 자들과 극빈층 구제에 2만 달러를 쓰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는 호부의 외국산 쌀 수입 제한 정책을 거슬러가며 끓인 쌀죽을 나눠주어 난민을 구제했다.”고 하여, 난민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 사면서도, 그들의 노력이 매우 지엽적인 측면에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홍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이 당시 다른 종류의 자연 재해에 대한 기록도 다양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진과 메뚜기 떼의 창궐에 대한 묘사도 있다. 지진은 원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기록 등이 있는데, 소식통을 인용하여 “지진은 8일간 계속되었습니다.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거나 매몰되었습니다.”¹¹⁾라고 하여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자연재해는 메뚜기 떼의 출현이다. “지난달 말, 광저우의 주요 당국은 후광에서 광시를 거쳐 광둥의 서남부인 가오저우부에까지 모습을 드러낸 메뚜기 떼에 대한 칙령을 공포했다.……‘시끄러운 소리는 황충[메뚜기] 떼의 하강을 막아준다’하여 대포와 징 등이 징용되었고, 군대가 출동해 일반 농민과 함께 황충과의 전쟁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다.……다른 지역에서처럼 여전히 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면 대포와 징 외에 ‘그들을 즉각 몰아내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할 뿐이다. 이 문건의 마지막 문단은 광저우의 열망을 더욱 부추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죽은 메뚜기를 놀랄 만큼 좋아하며, 돼지에게 메뚜기를 먹이면 단 4일 만에 무게가 10근에서 50근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¹²⁾

결과적으로 이 같은 홍수, 지진, 해충의 창궐 등은 직접적으로 중국 일반 민중들의 생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고, 이러한 위협성의 제거를 위해 국가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삶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부서진 주택이나 경작지의 복원, 농경지 침수나 파괴로 인한 식량난의 해결 등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는 쌀의

11) 민정기·심혜영 위음, 앞의 책, p.470.

12) 민정기·심혜영 위음, 앞의 책, pp.468-469.

유통과 공급 문제를 가장 중시하였고, 따라서 행정의 최우선도 ‘곡물법’을 제정하여 식량 상황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곡물법]

벼와 쌀은 백성에게 절대로 필요한 일용품이므로,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 오듯이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방해받는 일 없이 팔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중단하기 위해 곡물을 비축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된다. 이것은 백성에 식량을 공급하고 부도덕한 상인들을 제재하는데 깊은 주의를 기울인 진정한 바람에서 나온 조치이다. 어떤 가게에서도 쌀이나 밀이나 다른 곡물을 각각 160석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것을 초과하는 양을 비축하는 것은 ‘정부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만약 곡물 판매의 지속적인 흐름이 유지된다면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소유해도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법의 취지는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에서라면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 모든 상점 주인과 거래상에게 알게 하라. 곡물을 비축하는 것이 너희로서는 단지 자본에 대한 이자를 얻으려는 목적일 뿐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이 수많은 가난한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을. 수가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는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수천수만 명의 사람이 식량 결핍으로 인해 비통해한다. 그런 정신을 품고 있는 부자라면 아마도 확신컨대 하늘이 자기 혼자만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기 시대를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적은 이익밖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식량이 유통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하늘은 분명히 그런 선한 사람을 은밀히 도울 것이다. 본래 매일, 매달 축적하는 것으로 얻었어야 할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또한 좋은 명성을 누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가?¹³⁾

지방 정부에 의해 공포된 이른바 ‘곡물법’은 식량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비축만을 허용하기로 결정, 공포한다. 이른바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것을 초과하여 비축하는 일”을 “정부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는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에서라면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유통성을 통해서라도 곡식의 원활한 유통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반면, 식량의 비싼 가격이 “수많은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행복을 혼자만 누리지는

13)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14, p.416.

않게 할 것”이라는 행정 상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다. 본 논문이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거대한 자연재해에 마주해 무기력한 중국의 현실을 옆에서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시선이다. 물론 이들도 현지에서 같이 생활해가고 있는 중간지대의 경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더 큰 과학의 세례가 내려진다면 자연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에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무기력함을 근대 과학의 유포로 장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 속에서도 국가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식량 문제와 같이 백성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하는 법적 조치 등 국가의 행정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 또한 근대적인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서 다른 문명국의 재난 대응을 통해 자기 문명의 거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2) 반란 서사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된 리포트에 있어서, 「잡록」과 「사건일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눈에 보이듯이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묘사의 시선이 단순한 현지 상황에 대한 재현에만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 즉 선교 선교사나 혹은 근대적, 과학적 인간형으로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에 대한 전달이나 묘사에도 그 사건에 대한 주체의 관점을 추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장되어 있고, 이는 이들의 근본적인 근대성 상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자면, 사건과 사고 가운데 이 시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란들이다. 이는 당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노출시키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도 같은 사건인 것이다. 먼저 타이완에서의 반란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자.

최근 『경보』에 의하면 마침내 황제는 근래의 타이완 반란이 애초에 지역 정부의 무리한 폭압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당시 지휘 중이던 장군과 병참부의 대장을 파면했다. 그들은 명목상 2만 명의 군대를 민간의 ‘실용적’ 업무에 투입해 무역하는 사람들 속에 섞어놓음으로써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정작 반란이 발발했을 때 관리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황제는 그 사이 죽어 이미

무덤에 묻힌 늙은 푸젠총독에게 사후의 분노를 퍼부었다. 무덤은 지친 자들이 휴식을 얻는 곳이고, 사악한 자들이 말썽을 멈추는 곳이다. 만약 그가 여태 살아 있었다면 황제는 ‘나는 모든 부주의한 총독에 대한 경고로 그에게 죽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후 ‘이를 기록해 대내외에 널리 알리라’고 명했을 것이다.¹⁴⁾

황제는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반란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당시 병참부의 대장과 푸젠 총독 등의 실책을 확인하고, 중앙과 지방의 반란에 대한 대응 미숙을 강하게 질책한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 정부가 상존하고 있는 주변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군대 통솔 체계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황제는 떨어진 자신의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도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이미 사자(死者)가 된 지방 총독에게까지 분노를 드러낸다. 자신을 스스로 국가로 인정하는 1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불경한 도전을 용납한 관료들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무덤에 가서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1인 국가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행정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반응인 것이다. 반란을 막지 못한 행정체계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실제 반란 세력에게는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는 황제의 대응은 왕조의 말기로 접어드는 시기 국가에 대한 장악력의 욕망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 “『경보』에는 최근 타이완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다. 반란은 1832년 10월에 시작해 지난 (1833년)6월까지 계속되었고, 다시 평화와 고요가 찾아왔다. 8개월 이상 지속된 동란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이가 강등되고 많은 이가 승진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져’ 땅의 경작자들은 일상적인 삶을 재개했다. 황제의 군대는 의기양양 본래 자리로 돌아갔고, ‘폐하의 마음은 위안으로 가득 찼다.’”¹⁵⁾라고 하여, 그간 있어서 타이완에서의 반란에 대한 개요를 『경보』에 대한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반역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 1832년 9월 형부는 반역의 사후 처리를 두고 황제에게 반란 세력의 일가친척에 대한 연좌제의 변경을 주청한다. 그러나 황제는 이에 대해 건의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린다. “반란은 지역 전체를 감염시키는 악성 독이다. 그들이 지역의 관원과 군인, 그리고 가족을 끌어들이는 만큼 죄는 지대하고 사악함이 끝이 없다. 만약 후손을 모두 몰살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온정적인 조치다.”¹⁶⁾라고 하여, 형부의 건의를 일축한다. 반란 세력에 대한 가혹한 복수와 형벌은 봉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다시금 동일한 세력의 재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성년’

14)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69.

15)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71.

16)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72.

은 ‘군대의 노예’로, ‘미성년자’들은 ‘거세’로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황제의 권위는 도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 전근대 중국을 바라보는 서사 주체의 내부에 비친 근대성

1) 「조공사절단」과 「구홀」로 보는 국가

본 절에서는 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와 중국 국가 체계에 대한 시선과 관점을 이들의 기사 속에서 발견하고, 이들의 지역 체계 혹은 국가 체계 상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기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 이후 이어서 오스만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1821-1832년)¹⁷⁾을 일으켜 유럽에서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새롭게 유포되고 있던 시기였다. 유럽의 상황도 봉건적 통치로부터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수행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 이질적이었던 동양에서의 지역이나 국가 체계에 대한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적 위계의 형태로서 동아시아 사회 질서를 규정하고 있던 조공 시스템은 자신들 또한 동양으로 넘어오던 과정에서 겪었던 절차로 인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실 서구의 문명이 동양, 좁게는 중국이라는 문명과 어떻게 만남을 만들어 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간접적이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었다.

[코친차이나(Cochinchina / 交趾支那) 사신 즉 조공사절단]

올해는 코친차이나가 3년에 한 번 조공하는 해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후에 조정에서 베이징 조정으로 파견되었다. 3월 30일에 황제는 사절단이 중국 국경으로 들어와 광시, 후광 및 다른 지역을 거쳐 베이징에 도달할 것을 허가했다. 4월 20일에 황제는 코친차이나 왕이 보내는 서신과 조공품, 사절단으로 오는 관리와 수행자 명단을 미리 보고 받았다. 5월 19일에 사절단은 광시성 성도인 구이린桂林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순무의 접대를 받으며 며칠을 머물렀다. 또한 황제의 이름으로 실크 바지와 다른 옷을 받았는데, ‘날씨에 따른 의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5월 26일에 그들은 물길로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다. 8월이나 9월에 도착해 황제의 생일을 기다렸다가 향연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3명의 관리와 8명의 동행자 및 수행원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2월에 그들의 해안에 난파된 중국 군함을 이끌고 와 지금은 강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코친차이나 선박은 ‘밸러스트[바닥짐]로 싣고 온 물건들’을 먼세로 내다

1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nlee96&logNo=221682228681> 참조.

팔고 다시 가져갈 화물을 구매할 것을 허가받았다.

『정보』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친차이나 왕의 이름은 푸자오 福咬이고 성은 환阮이다(응우옌 폭 끼에우, Nguyễn Phúc Kiểu: 1791-1841). 환 가문은 건륭 54년(1789년) 이래 그 나라를 통치해왔다. 그렇지만 가경 연간에 얼마 동안 축출되었는데, 이후 현재 왕의 부친인 환푸잉阮福暉(응우옌 폭 아인, Nguyễn Phúc Ánh: 1762-1820)이 왕조를 되찾아 재건하면서 옛날 이름인 안난安南(안남, An Nam)을 버리고 현재 이름인 위에난越南(비에트남, Viet Nam)을 택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코친차이나 왕의 연호, 즉 국가 명칭인 ‘밍명明命(민망, Minh Mạng)’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⁸⁾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중주권은 “초월적인 황제권을 확립하고 그 아래에 주변 여러 지역을 복종케 한다는 관계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이 중주-번속관계가 끊임없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이들 양자는 입장을 바꾸어 자신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¹⁹⁾ 바로 조공관계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양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포함하는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된 통치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통일체’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다이너미즘을 가진 역사적 지역 질서(시스템=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광역지역 질서, 광역통치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⁰⁾ 특히나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조공은 세계사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중화이념은 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 한 것이 바로 예(禮)의 관념이다. 조공국가는 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의 은혜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의 표시를 해야 했고, 이를 통해 질서의식의 상호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예물(禮物)과 포상(褒賞)이라는 물품의 교환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재물의 수수는 “예”라고 하는 관념의 실질적인 운용을 표상하고 있었다.²¹⁾

정례화된 조공관계는 황제가 조공국에게 책봉을 내리고, 둘 사이에서 중주와 속방(屬邦)이라는 상호 관계가 설정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친소에 따라 책봉사가 파견되거나 혹은 조공사가 칙서나 인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의 사례는 청대시기 조선·류큐·베트남만이 해당되었다.²²⁾ 특히나 “중국황제의 승인을 받은 조공국은 정해진 연도마다 정해진 지점(해로는 광저우·푸저우·닝보 등)에서 입국해

18)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64.

19)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덕·권기수 옮김,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명출판, 2018.10. p.9.

20)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덕·권기수 옮김, 앞의 책, p.10.

21)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덕·권기수 옮김, 앞의 책, p.103.

22)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덕·권기수 옮김, 앞의 책, p.104.

정해진 코스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조공 사절 전체의 인원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많은 경우 1,000명 가까이를 헤아렸다. 일행은 상인을 데리고 공물과는 다르게 베이징의 회동관(會同館)에서 특산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거래 가능한 상품과 그 양도 정해져 있었으나 이 법정거래보다도 사적인 거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조공무역은 무역이익 획득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²³⁾ 이와 같은 조공의 관계는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위계를 표상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역단위로 파악해 볼 때 동심원의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아시아에서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예(禮)라는 이데올로기적 근간을 중시하는 조공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선교 선교사들은 서서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적어도 당시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등장이라는 사건과는 대비를 이루면서 이들에게 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조공체계가 이처럼 중국 외부의 아시아적 질서를 위계적으로 표상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당시 국가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예를 들면, 거대한 홍수와 직면했을 때, “정부의 통솔권을 갖고 있으며 백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우리가 잘못된 통치로 자연의 조화를 파괴해 이런 심판을 불러온 것이다. 나는 백성의 고통을 차마 볼 수가 없다. 백성들이 집도 가정도 없이 밖으로 흩어지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재난이 나에게 가해지기를 바란다.”²⁴⁾는 표명을 인용해, 당시 해당 사회 통치의 유형을 전형적인 가부장적 유교 체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재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자책하는 것에 주목한다. 국가는 바로 백성들을 하나의 관리와 구휼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은 이러한 구제 활동을 통해 개인들을 보호하는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좀 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사회의 현상 속에서 찾아 낼 수 있기를 희망했고, 그러한 실천적 행정은 비록 봉건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그들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홍수에 따른 기근과 그에 대한 구휼의 기사²⁵⁾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에 대해 주목하는 이들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당시 정부의 통치 방식은 국가가 백성의 부

23)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덕·권기수 옮김, 앞의 책, p.104.

24)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29.

25) “[구휼(음식 배급)] 최근의 베이징에서 다량의 음식이 사람들에게 배급되었다. 처음에 쌀죽이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이 담아갈 그릇을 가져오지 않은 까닭에 쌀로 대체되었다. 『경보』의 기사를 통해 열흘간 461,129명의 남녀노소가 음식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57.

모로서 그 생명과 가치를 보호하고 또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의해 공적 역할을 제공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권력은 사유화되어 있고 국가의 운영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기보다 군주의 심리 상태에 따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된다. 특히 법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적 국가 운영보다는 “소수의 명예와 영화”를 위해 법의 체계가 작위적으로 적용되고 또 해석되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법치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영속성을 갖기보다 그 순간을 지나가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 중에는 중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굴욕적인 직업, 예를 들면 짐꾼이나 요리사 같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즉흥적으로 발효되었다가 얼마가지 않아 사문화되는 경우를 들어, 중국의 법치는 지속성과 공정성이 결핍되어 있고, 결국 1인 통치자의 감정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통치 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²⁶⁾

2) 소외된 개인들과 지역에 대한 기록 : 이주민, 아동, 여성

본고가 앞장에서 서구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이라는 국가가 의탁하고 존립하는 근거로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체계와 또 국가 내부의 질서로서 법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근대의 가치로서 인권이나 민주, 혹은 평등을 구현하는 상대방 국가가 아닌 1인 절대 권력의 지배에 의해 전체 사회의 위계가 구성되어 있는 대상들에 대해 서사의 주체들은 한 편으로는 그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근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국가라는 외형적 권력 구조 대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더 주변화 되고 또 소외된 개인과 지역들에 대한 이들의 기록과 그에 대한 시선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이 시기에도 주변화된 범주로서 이주민과 여성, 그리고 특히 버려진 아동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면서도 국가 통치 체계의 빈틈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층화의 압력을 받고 있던 집단들이었다.

26) “이것은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다수의 편리나 복지를 위해서보다는 소수의 명예와 영화를 위해 법을 정한 경우이다. 지방 정부가 외국인들을 괴롭히고 복종시키기를 바랄 때면 언제든지 위에서 말한 오만한 원칙을 국내 모든 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요리사와 일꾼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그들은 조롱하듯이 매판은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매판만이 요리사의 재주를 고용해 조리할 식량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법과 선례는 남아 있으며 확신하건대, 상황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될 것이다. 러의 금령은 단지 며칠 동안만 강제로 유지되었고, 가마꾼들은 다시 평소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32.

“벙갈에서 모은 수백 달러나 수천 달러의 돈을 갖고 오는 중국인들은 그런 노상강도들에 의해 정착지로 가면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의 꼬임을 받게 된다. 이 이방인들이 외딴 곳으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몸은 망가지고 재산은 약탈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빼앗은 재산의 절반은 협회로 가고 나머지는 포획자 수중에 들어간다.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는데, 해당 지역 지방관이 그것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듣게 되면 범죄자를 체포하러 사람을 보낸다. 그러나(자신도 해협에서 수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다는 우리 현지인 필자 말에 의하면) 정착지의 관습법에는 결함이 있다. 그들이 감히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 목격자가 있어야 하며, 감히 고문 방식으로 강력한 심문을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비록 한편에는 한두 사람의 목격자가 있어도 다른 한편에는 또 피고를 두둔하는 무수히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도 새로 온 사람이 단지 혼자뿐이라서 만약 마을사람 중 누군가가 그의 편이 되어 고충을 시정해주려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나서 지방관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수백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피고를 위한 증인으로 나설 것이고, 해당 지역 지방관들은 그렇게 해서 종종 속임과 기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에 대해 호의를 보인 중국인은 조직의 은밀한 악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정착지를 떠나도록 강요당하게 된다.”²⁷⁾

이주노동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돌아온 중국인들은 그 지역의 지역 협회와 그 소속 노상강도들에게 회유나 강탈에 의해서 그것을 뺏기는 경우가 많고, 또 사건이 있은 후 지역의 지방관은 설사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착지의 독특한 자치적 규율 혹은 관습법에 의해 약탈자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 이들은 지방에서 조직화되어서 돈을 모아 돌아온 이주노동자들의 돈을 약탈하고 신변을 위협한다. 이는 청대 당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세력을 포함해 자치적 전통과 관습이 남긴 비합리적 국가 통치의 전통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 관습과 법률을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도우려는 양심적인 중국인조차도 은밀한 보복과 괴롭힘에 시달려 그 곳을 떠나게 만든다.

이러한 지방의 자치적 질서는 중앙집권적 권력 형식에 비해 그 지역의 정서와 전통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에 있어서도 사적인 경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 법의 속성은 중국과 서방 사이의 무역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²⁸⁾ 지방관의 사법

27)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27.

28) “Knowledge of Chinese law remain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llowing year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this context was the translation of the ‘Ta Tsing Leu Lee’, the laws of the Qing dynasty, by George Thomas Staunton in 1810. This work established its meaning in two different context : for the general interested public in Great Britain on the one hand and the EIC in London and Canton on the other. In Canton, the information on C

행위는 중앙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권위와 실질적인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법 적용은 이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방의 관습 또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 양심 있는 중국인들까지도 그 집단에서 은밀한 보복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그 곳을 떠나게 만든다. 이 같은 이주하층민에 대한 지방의 핍박과 약탈은 한 편으로 이들 약자들의 하층화를 더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지역의 전통이라는 이름은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 같은 집단들의 공식화를 은밀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의 협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합회인 것이다.

또 『차이니스 레포지토리』의 다양한 기사들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약탈뿐만 아니라, 이 시대 또 다른 약자인 아동들에 대한 매매, 혹은 납치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약자의 고통을 더욱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들의 뇌리에는 중국 사회가 인권은 물론 약자들에 대한 착취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밖에 없었다.

[아동매매]

광둥의 동부, 차오저우潮州부에서 쌀 부족으로 식량 수요와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총독과 부의 관리들은 부상들이 일정 양 이상 매점매석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매점매석은 쌀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비록 가격은 조금 올랐을 뿐이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길거리에는 부모가 아이를 팔기 위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자신과 아이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통스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래에서 구매자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대해 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써줘야 한다. 우리는 며칠 전에 불과 6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25달러에 팔린 사례를 알게 되었다.²⁹⁾

이들의 기사를 잘 분석해 보면, 아이들에 대한 납치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연재난이나 식량 부족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저층화된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사회 제도가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들

hinese law was seen in a practical light; something that could be used in discussions with the Cantonese authorities, or to predict their actions as well as the character of these authorities. Case such as the ones mentioned above, in which the Chinese cooperated with the British, even led to the idea that the Chinese law could be more flexible than the written Penal Code suggested.” Ulrike Hillemann, 『Asian Empire and British Knowledge-China and the Networks of British Imperial Expansion』, palgrave, Cambridge Imperial and Post-Colonial Studies, 2009, p.53.

29)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p.439-440.

고 있었다.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심지어 길거리에서 아들에 대한 매개가 이뤄지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국가의 기능이 최소한의 가족제도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들에게는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전쟁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납치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 당시 지방에서는 지방관에 대한, 혹은 청정부에 대한 크고 작은 반란이 있어왔던 시기인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아동에 대한 납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833년 6월 2권 2호의 타이완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아동납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타이완]

이 이슈에 관해 이번 달에 우리 귀에 들어온 보고는 거의 없다. 반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광둥과 푸젠 이주민들이 서로에게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 전자는 보복을 위해 정부군에 들어가 싸운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의 전부이다.

『경보』의 한 소식에 의하면, 푸젠으로 가기 위해 허난을 지나는 군대 안에 그들이 지나온 두 마을에서 납치한 17명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 황제는 군대의 규율을 위해 엄격한 조사를 명했다.³⁰⁾

타이완의 반란이 183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지속되면서 그 내부에서 광둥과 푸젠 이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고, 광둥 이주민들은 타이완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정부군에서 싸운다는 정보는 타이완 반란의 성격이 이주민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대립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타이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황제의 군대가 어떤 마을을 지나면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납치한 사건은 군대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면서, 황제가 직접 조사를 명하기에 이른다. 사실 아이들에 대한 납치가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가의 조직인 공적인 권위에 의해 조절되지 못하고 말단의 행정력이 통제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만큼 이 당시 사회 기강의 문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였고, 이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국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한 의미의 사건이었다.

이주민, 아동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 또한 온전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회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년 간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불공평하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사례가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들은 주목한다.

30)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p.441-442.

이는 유럽에서 인권의 사유가 발생하던 시기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던 신교 선교사들에게는 현실 중국 사회의 낙후성을 여실히 각인시키는 사건들이었다. 이들은 평소에도 여성의 권리 보호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범죄와 형벌]

산시 지방의 한 미망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 그녀는 간통을 하면서 쌀과 돈을 집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정부(情夫)가 가난에 빠지자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었다. 모든 간통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남자를 쫓아가서 뭐든 가져오라고 명했다. 며느리가 실패하자 시어머니는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날카로운 갈고리, 즉 낫을 집어 들었다. 두 사람이 싸우다 시어머니가 죽었다. 며느리는 시신을 근처 강에 유기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녀는 능지형을 선고 받았으나 시어머니가 그녀를 죄악으로 팔아넘긴 정황을 참작해 최고 법정에서 즉각적인 참수형으로 감해졌다.³¹⁾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중국 여성의 상황”이 “사고 팔수 있는 상품”, “딸(며느리)에 대한 부모의 전적인 지배”, “여성에게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와 같이 경멸과 비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국 사회 전체가 이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그들을 향해 “잔인성”을 휘두르고 있다고 진단한다.³²⁾ 이들이 보기에 여성도 하나님만큼이나 고귀한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들인데, 중국의 여성들은 그러한 고귀함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여성 인권 경시가 바로 근대적인 인간 평등사상의 기준에서 볼 때, 진정한 근대 사회 혹은 국가로의 진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 같은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의 선택권을 갖지 못한 어린 신부들의 자살 사건 소식³³⁾ 등은 당시 유럽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제약되어 있

31)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73.

32) “우리는 여기서, 앞에 실린 ‘중국 여성의 상황’에 관한 글에서 언급한 바, ‘여성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 ‘딸(며느리)에 대한 부모의 전적인 지배’, ‘여성에게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와 같은 교리의 자연스런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죄악, 억제되지 않은 열정, 잔인성은 무지와 자기비하의 떨 수 없는 동반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에 의해 상기될 때마다, 또 이 존재들이 순전하고 거룩한 천국의 주민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떠올릴 때마다 복음을 알리기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p.473-474.

33) “[어린 신부의 자살] 우리는 광저우에서 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한 현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웃의 한 어린 신부가 시택에서 돌아와(예부터 전해지는 관습에 따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녀에게는 한 자매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아마도 약혼한) 몇몇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나쁜 남자에게 시집갔을 때 여자가 처할 수 있는 불행한

던 이들의 인권상황을 부각시키고 전달하기에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

3) 서양인이 보는 중국 지식인

신교 선교사들은 주로 「잡록」과 「사건일지」의 텍스트에서 일회성 사건 가운데 소외된 개인들, 예를 들면 이주민, 아동, 여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 중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 계급 중심의 위계가 어떻게 공고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지방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통치 계급 스스로가 재구축해 내는 자신들만의 권력 분배 질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이는 공적 사회나 민주적 공화체제에서 국가의 사적 운영을 배제해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질서의 핵심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문제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구질서의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권력을 재분배하는지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의식은 사실 봉건체제로부터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넘어오면서 형성된 새로운 통치 관념의 부산물일 것이다. 봉건체제나 근대체제 모두 법률이 있고,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운용이 결과적으로 체제의 본질을 나누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핵심적 이익에 대한 공유와 관련해 황제가 하사하는 관직 문제를 이들의 시선 속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중국 최상층부의 권력자가 관직이나 법률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점을 은유적으로 야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너무 흔한 황제의 관직 하사’와 같은 부조리를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과거합격]

광저우 공행 총상이 호쿠아³⁴⁾의 아들 중 하나와 텅쿠아의 아들 하나가 거인擧人

상황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나쁜 남자에게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장하면서-그러한 대화와 그로부터 야기된 불안으로 어린 4명의 무지한 생명은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서로 손을 묶고 근처의 강에 몸을 던졌다. 경보가 울리고 그들은 구조되었지만 모두 살아나지는 못했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p.454-455.

- 34) “호쿠아浩官는 이화행怡和行의 행주行主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세습되었다. 여기서 ‘쿠아呱’는 중국 남방에서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이름에 덧붙이던 ‘관官’의 광동어 발음이다. 중국인 이름이 서양인들에게 생소하므로, 서양과의 교역이 잦은 행상은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영문 별칭을 비즈니스 네임商名처럼 사용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호쿠아는 우병첸伍秉鑑(1769-1843)을 지칭했다. 그는 광저우 13행을 대표하는 상인 十三行總商이자 당시 세계 제일의 부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에는 뒤따라 시행되는 상급 학위인 진사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사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들이 거인에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렌저우 요족 반란의 진압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황제가 너무도 자주 하사하는 공작 깃털 같은 영예로운 선물을 ‘빋자루’에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이 금고를 쓸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국의 영예로운 선물과 직함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³⁵⁾

본고의 전반부에서 다뤘던 타이완이나 렌저우 등의 지방 반란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에게 군사적, 행정적, 재정적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 지역 주변의 군대가 동원되어야 하고 또 재정 또한 그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조달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광저우의 공행 총상은 렌저우의 요족 반란 진압 시 많은 비용을 조달하였고, 이는 사실 지방에서 거상들의 이권 보호와 연계되어 있는 행동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해 황제는 위의 사례에서 그 재정적 후원자의 자식들에게 “거인 擧人 학위”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 이 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전체 사회에 대한 통치 지배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호 유착은 점점 더 큰 이권을 앞에 놓고 그것을 공유하고 독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피지배 계층의 입 속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보상에 대해 야유하고 그것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민간의 저항 담론이 형성된 것 또한 필연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보상이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과거제도의 권위를 포함한 지배 계층의 독점적 권력과 권위는 그것의 원천인 백성의 지지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이 법질서나 행정적 권위에 대해 지나치게 사적 형식의 행사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어떤 형식의 권위가 하층민을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고 따라서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층과 지식인들의 관계라는 것이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즉 공적 수행과 사적 보상이라는 분류로서만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지식 공동체들에 의한 집단 지배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황제가 지식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로 손꼽혔다(미국 최고 부호가 700만 달러 정도였던 시대에 그의 재산은 26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일례로 아편전쟁 직후 중국 정부에 부과된 배상금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혼자 부담할 정도였다. 랍상소우총립山小種(정산소종正山小種이라고도 한다)이란 홍차 브랜드에 ‘호쿠야’란 상품이 있는 것만 봐도 차 상인으로서 호쿠야의 대표성을 알 수 있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38 각주.

35)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43.

[나이든 한 관리의 은퇴]

중국에서 정부 관리들은 황제의 노복으로 여겨져 황제가 머물기를 원하는 한 물러날 수가 없다. 황제는 그들을 고용하고 승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직을 윤험함에 서도 다정함을 드러낸다. 각료 중 서열 4위인 루인푸³⁶⁾는 지난 몇 달간 병석에 있었다. 그는 건강이 나아지질 않자 황제에게 사직을 윤험해줄 것을 진심을 다해 요청했다. 그러한 요청은 그 관리가 오랜 기간 병석에 있을 때 종종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좀 더 진지한 경우였다. 황제는 그의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한 근심이 병을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이를 윤험했다. 그리하여 그는 태자태보太子太保라는 직책을 받고 물러났다. 그에 따른 수당과 월급도 모두 받았다.³⁷⁾

본문에서는 루인푸라는 노쇠한 관리의 진퇴와 황제의 윤험 문제를 다루는데, 황제는 이들 지식인들에 대한 고용과 승진뿐만 아니라 사직을 허할 수 있는 자리이며, 여기서 물러날 때의 상황에 기대어 보면 이들의 관계가 매우 인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이 통치의 질서,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인 관료와 황제의 사이가 공적 시스템의 지배를 받기 보다는 황제 1인의 주관적 혹은 네트워크적 인식과 위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앞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중국의 영예로운 선물과 직함 대부분이” 상당히 사적인 차원의 권력 행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 나이든 관리의 은퇴의 사례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를 편집진들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적 관계 여부를 떠나 청 말의 대표적인 경학자이면서, 또한 주요 지방의 총독 자리를 역임한 환위안(阮元)이라는 특정인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따라 읽어보자.

[환위안]

이 관리에 대해 우리는 기발간된 지난 호들을 통해 적어도 한 번 이상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70세를 맞이해 원난의 관직을 떠나 베이징에 가 있다. 황송하게도 황제가 친히 하사한 어필과 비단 등의 선물에 감사하며(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머리를

36) “루인푸(盧蔭傅)(1760~1839년) : 산둥성 더저우德州 황허야진黃河涯鎮 출신이다. 청 왕조의 대신으로 건륭, 가경, 도광 3대에 걸쳐 50여 년간 군기대신, 육부상서 등 주요 요직을 다 거쳐 도광 10년(1830년)에 정1품인 체인각대학사體仁閣大學士에 제수되었다. 당시 문화전대학사文華殿大學士 창령長齡, 무영전대학사武英殿大學士 차오전용曹振鏞,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 튀진 托津에 이어 서열 4위 각료였다. 도광 13년(1833년)에 병으로 사직하고, 도광 19년(1839년)에 죽었다. 후임은 판스언潘世恩(1769~1854년)이었다.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50, 각주 참조.

37) 민정기·심혜영 엮음, 앞의 책, p.450.

수령에 누웠다.” 총독 환위안은 총독 리홍빈 탄핵 때 그가 겸임했던 내각 서열 6위 자리인 협판대학사協辦大學士 업무를 계승했다. 그리고 이제 원난으로 돌아가는 대신 조정에 남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우리는 당국자로부터 입수한 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환위안은 중국의 다른 어느 정치인보다 문학적이고 재능이 많은 인물이다.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두 번째 단계인 거인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중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작’(공자의 후예인) 집안에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그는 관직에 나아갔고, 훗날 매우 다재다능한 여인이었던 공작의 딸과 결혼했다. 환위안의 딸 중 하나도 그가 광둥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집을 출간함으로써 문학적 역량을 드러냈다.

환위안은 전시殿試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얻고 한림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 총독이 되었고, 원난으로 갈 때까지 광둥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그는 훌륭한 문학자이자 학문의 위대한 후원자였지만 좋은 총독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의 제안과 관리 감독하에 광둥 지방의 방대한 통계 자료인 『광둥통지廣東通志』가 출간되었다. 이 저작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서양의 저자의 것과 비교하면 수준이 낮지만 중국에서 나온 다른 대부분의 통계 모음집보다는 뛰어난 것이었다.³⁸⁾

환위안은 호광(湖廣), 양광(兩廣), 운귀(雲貴)의 총독을 지낸 사람으로 말년에 앞의 루인푸처럼 체인대학사(體仁閣大學士)와 태부(太傅)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아편전쟁 이전 10여 년간 서방과의 무역을 관장하면서, 영국과의 갈등 속에서 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학문적으로도 경사(經史), 수학(數學), 천산(天算) 등에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저서로 『십삼경주소교감기(十三經注疏校勘記)』이 있는데, 이 같은 청조의 대신(大臣)이자 대표적인 사상가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해당 난에서 소개하고 있다. 환위안의 개인적 이력뿐만 아니라 황제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능에 대한 필자 즉, 외국인으로서의 평가까지 첨부되어 있다. 그러면서 훌륭한 문학가이기는 했지만, 훌륭한 총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정치가로서 또 총독으로서 영국과의 대외 무역을 관장하면서 대립의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인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인물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영국에도 많이 알려져야 하는 필요가 있는 인물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그려내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일대기적 인물정보다는 오히려 해당 난에서 환위안을 소개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마도 글의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제안과 관리 감독 하에 광둥 지방의 방대한 통계 자료인 광둥통지廣東通志가 출간되었다. 이 저

38) 민정기·심혜영 위음, 앞의 책, pp.458-460.

작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서양의 저자의 것과 비교하면 수준이 낮지만 중국에서 나온 다른 대부분의 통계 모음집보다는 뛰어난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환위안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중국 지식계 내에서 월등할 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근대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광동통지廣東通志』의 기획자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들의 환위안에 대한 평가는 비록 구체제의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통계나 지리와 같은 근대적 학문체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중국 지식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필히 영국이나 유럽에도 알려져야 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결론 : 대상에 대한 미세서사와 그 내면의 이데올로기

본 논문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의 「잡록」과 「사건일지」에 소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필자들의 눈에 비친 중국의 사회 현상, 자연 재해, 국가 기능, 지역 소식,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소재의 기사들은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로 하여금 동서양 문명 충돌 혹은 근대성과 같은 거대 담론 서사보다는 현실 속에서 매일 매일 부딪치는 문제들을 현장성 있게 다룸으로써 경계 지역 혹은 접촉 지역 내에서의 중국인과 이방인들의 삶을 구성하는 미세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세서사들은 한편으로 당시의 현실들을 반영하여 청대 말기 중국 사회의 부조리를 담아내고 있지만, 반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근대성이라는 잣대로 대상화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시선 속에서는 오리엔탈리즘적 전유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소재에 있어서 파편화된 기록들이기는 하지만, 당시 신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중국의 지방 혹은 경계 지역의 삶의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근대성의 요구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분석을 해보면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구중국의 낙후성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주체들로 하여금 중국을 더욱 더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을 만들어 내는데 글 하나 하나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따라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당시 중국의 사회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측면과 동시에 당시 민중들의 생활사를 다양한 미세서사를 통해 최대한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지적 실험이기도 하다. 「잡록」과 「사건일지」에는 주로 당시 지방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던 자연재해나 반란 등 기존 체제를 동요시키는 사

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물리적 혹은 수량적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회 모순이나 다양한 층위의 약자들의 삶을 미세 서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서 중국사회에 요청되는 근대화의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대의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안 주변부 삶의 일상들을 그려내는 미세서사이지만, 그것의 구성과 묘사는 신교 선교사들의 근대성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잡록」과 「사건일지」의 글을 구성하는 미세서사와 그 내면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최대한 파악하면서, 이들 서사 속에서 표현되는 당시 현실 중국의 현장성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민정기·심혜영, 『동서양의 경계에서 중국을 읽다』, 새물결 출판사, 2018.05.
 메리 루이스 프랫, 『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2015.
 하마시다 다케시 지음, 서광택·권기수 옮김,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명출판, 2018.10.
 고혜림·양난, 「문화접촉의 경험이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작중인물의 심리학적 접근과 고찰」, 『중국학』 제63집, 대한중국학회, 2018.06.
 민정기, 「귀츨라프: 세 번째 중국연안 항해의 기록」,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7.07.
 백광준, 「19세기 초 서양 근대 지식의 중국 전파 -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91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7.
 심혜영, 「18-19세기 신앙부흥운동의 문맥 속에서 바라본 브리지먼의 중국선교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 『중어중문학』, 제71집, 한국중어중문학학회, 2018.03.
 신정수, 「19세기 전반기 유럽 선교사들의 『三國志演義』 소개 방식과 서술 태도 연구 -모리슨과 귀츨라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7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5.08.
 ———, 「『紅樓夢』 초기 영문 자료 해제 및 번역: 19세기 전반기 캔톤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2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8.01.
 차태근, 「19세기 전반 동아시아 담론과 지식망」, 『중국현대문학』, 제32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03.
 Ulrike Hillemann, 『Asian Empire and British Knowledge-China and the Networks of British Imperial Expansion』, palgrave, Cambridge Imperial and Post-Colonial Studies, 2009.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nlee96&logNo=221682228681> 참조.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国丛报》, 杂记, 事件日记, 细微叙事, 东方主义, 现场性, 记录, 反乱, 灾难, 弱者, 知识人
	영문	<i>The Chinese Repository, Miscellanies, Journal of Occurrences, Micro Epic, Orientalism, Locality, Record, Rebellion, Disaster, The Vulnerable, The Intellectual</i>
<p style="text-align: center;">China's Social Image at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Reflected in the Eyes of Westerners : Focused on 「<i>Miscellanies</i>」 and 「<i>Journal of Occurrences</i>」 of 『<i>The Chinese Repository</i>』</p> <p style="text-align: right;">Lee, Bo-Go</p> <p>This research observed China's social phenomenon, natural disaster, national function, regional news and figures reflected in the eyes of writers focusing on the contents presented in the 「<i>Miscellanies</i>」 and 「<i>Journal of Occurrences</i>」 of 『<i>The Chinese Repository</i>』. The articles of this material showed the micro-epic that configures the life of Chinese people and strangers in the boundary areas or contact areas by treating not a huge discourse narrative like the West Civilization Clash or the Modernity but the daily problems in a realistic manner by the missionaries coming to in China. Of course, these micro epics reflected the realities at that time and contained the absurdity of Chinese society at the end of Qing Period, but while it contained the Orientalist exclusive possession in the eyes of missionaries targeting China naturally on the basis of modernity. Although they are those records fragmented in the material, but seeing it in the position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at that time, they are those stories tha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requirement of modernity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reproducing the life aspects lively in China's region or boundary area at that time. Therefore, analyzing even in the description of case or accident, the contents of Old China's falling behind and pre-modernity discovered in the daily life are occupying, and each of them is displaying the role of stepping-stone in making the logical consequences that should let the narrative subjects modernize China more rapidly.</p> <p>Therefore, this research is also the intellectual experiment that reflects the side of grasping China's social image at that time in the eyes of stranger and the will of reconfiguring people's lifestyle through several micro epics. In 「<i>Miscellanies</i>」</p>		

and 「*Journal of Occurrences*」, the cases agitating the existing system such as natural disaster or rebellion that the regional society continuously faced at that time are registered. However, these records did not only make the physical or quantitative description but also drew the social contradiction or the life of the vulnerable through the micro epic, and made the logics empowering the cause to promote the process of modernity requested to Chinese society. Superficially, it is the micro epic drawing the daily life around the inside of China, but its configuration and description were closely related to modern ideology of protestant missionaries. Therefore, this research tried to grasp the subtle tension between the micro epic configuring the work of 「*Miscellanies*」 and 「*Journal of Occurrences*」 and its internal ideology, and to ask a question how to read the locality of China expressed in their epic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보고 / 李保高 / Lee, Bo-Go				
	소 속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Em@il	bogopanda@hanmail.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05.20	심 사 일	2020.05.26	게재확정일	2020.06.11